

경기도 예술인 재도약 지원 <갭이어(Gap Year)> 최종 심의평

2022년 경기도 예술인 재도약 지원 <갭이어> 사업에는 문학, 시각예술, 연극/무용, 음악, 다원예술 등 5개 분야의 다양한 지원 계획이 접수되었다. 분야별 예술가들의 깊은 고민이 묻어있는 상당한 분량의 지원서를 보면서 앞으로도 예술가를 위한 지속가능한 지원 정책이 개발 및 시행될 필요성이 있음을 절감했다. <갭이어> 사업은 지원사업의 구성부터 기존의 창작 지원 사업과는 다르게 설계 되었는데, 창작활동 자체보다는 그것을 행하는 예술가의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면서 (코로나 19 시절을 견디는 과정에서) 새로운 영감을 찾아 나서는 예술인 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지원이었다. 이 지원사업의 취지를 잘 알고, 정교하게 <갭이어>의 활동을 계획한 예술가분들도 계셨지만, 많은 지원자가 지원의 새로운 방향성보다는 기존의 창작활동의 성과물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아쉬움이 남았다.

이번 심사에서는 창작물 제작비 충당과 같이 예술가의 창조적 전회나 성찰적 활동을 위한 도약과 관련이 없는 경우,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계획의 지향점을 읽어내기 어려운 경우는 본 지원사업과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대로 이전까지의 창조적인 예술 활동과 연관성을 지니면서 휴식, 재교육, 실험적 시도 등 향후 예술가의 발전가능성이 엿보이는 경우는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보태면, 전체 분야 내에서는 무용, 음악(국악), 시각예술에서 특히 많은 응모자가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현실적 위기감이 반영된 분야를 엿볼 수 있었다. 아쉽게도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모든 예술가들이 코로나19의 시간을 잘 견디면서 더욱 힘찬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기를, 심의위원 일동은 바라고 또한 응원한다.

2022년 11 월 23 일

심의위원 : 강보라, 류동현, 성준현, 이나리메, 전해수